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11월 1주~11월 2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- 바르샤바 신축 아파트 판매, 3분기 43% 급증, 수요가 공급 앞질러(11.4)
 - 2025년 3분기 바르샤바 신규 아파트 판매량이 4,150세대로 전분기 대비 43.3% 증가한 반면, 신규 분양 물량은 3,738세대로 3% 감소함
 - 시중 공급 물량이 16,442세대로 6월 대비 3.3% 줄어들며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양상이 나타남
 - 금리 인하, 주택구입 보조금 폐지, 주택가격 투명화법 시행이 수요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
 - 바르샤바 신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m²당 18,300 즈워티(약 717만원)로 전분기 대비 0.8%, 전년 대비 1.9% 상승함
 - 9월 물가상승률이 2.9%를 기록하며 실질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함
 - CBRE는 금리 인하와 가격공개법 시행으로 실수요자가 재진입하고 있으며, 향후 추가 금리 인하 시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
 - 폴란드개발업자협회(PZFD)는 금리 하락과 보조금 기대감 소멸, 시장 경쟁력 확대에 의한 자연스러운 회복세라고 평가함
 - 폴란드경제연구소(PIE)는 바르샤바만 신규 분양 시장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, 단기 급등은 어렵지만 안정적이고 완만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고 전망함
- 폴 중앙은행, 기준금리 0.25%p 인하, 올해 다섯 번째 조정(11.5)
 - 폴란드 중앙은행(NBP) 통화정책위원회(MPC)는 기준금리를 4.50%에서 4.25%로 25bp 인하,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조정을 단행함
 - 올해 5월 0.5%p 인하 이후, 7·9·10월에 총 0.75%p를 추가 인하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누적 인하 폭은 1.25%p에 달함

- 중앙은행은 임금 상승세 둔화와 경기 둔화를 금리 인하 배경으로 제시
-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2.8%로, 물가안정 목표 범위 내에서 안정세 유지
- 2023년에는 급등한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긴축 이후, 연간 총 1.0%p 인하를 단행한 바 있음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○ 우크라이나 물류산업 회복세, 3분기 기업 수 두 배 증가(10.27)

- 전쟁 및 인프라 파괴에도 불구하고, 우크라이나 운송·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회복 및 성장 중
- 2025년 10월 초 기준 물류 분야 종사 기업 및 개인사업자(FOP)가 총 26만 400개로 집계
- 이 중 법인은 약 69,500개, 개인사업자는 약 19,000개 수준임
- 2025년 3분기 개인사업자 신규 등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증가하여 8,262명 늘어남
- 주요 활동 지역은 키이우 3,500개,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18,900개, 오데사 18,300개로 대도시 중심의 분포를 보임
- 물류 산업 상위 15개 기업의 2024년 총매출은 ₩2,336억(약 8.03조원)에 달함
- 주요 상위 기업은 우크라질리니차(₩1,081억, +20.5%), 노바포슈타(₩485억, +100%), 우크르포슈타(₩136억, +16.2%) 등 모두 매출이 증가
- 업계 전반의 성장세는 전쟁 중에도 물류망 복원과 민간 기업의 유연한 대응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

○ 드래곤 캐피탈, 2025~2026년 우크라 GDP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(10.30)

- 우크라 최대 투자사 드래곤 캐피탈은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2.0%에서 1.7%로, 2026년은 1.5%에서 1.0%로 각각 하향 조정함
- 성장률 하향의 주요 요인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재공격과 EU의 동결 러시아 자산 활용 입장 변화를 지목함
- 드래곤 캐피탈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

동기 대비 0.8%로, 2024년(2.9%)과 2023년(5.5%)에 비해 뚜렷한 둔화를 보임

- 2026년 초 휴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연간 성장률이 5%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
- 인플레이션율은 5월 15.9%에서 9월 11.9%로 완화되었으나, 에너지 비용 상승과 정부 지출 확대에 따라 향후 몇 달간 기초 물가 압력이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음
-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5년 9.3%에서 2026년 6%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

○ 우크라이나 주요 기업들의 신규 투자 동향(11.3)

- 우크라이나 최대 철강그룹 Metinvest, 루마니아 ArcelorMittal 계열 Tubular Products Iasi S.A.(AMTP Iasi) 인수 추진
- AMTP Iasi는 소형 용접 탄소강 파이프 제조업체로, Metinvest는 이를 통해 유럽 내 철강 가공 밸류체인 강화 및 생산기반 다변화 목표
- 현재 EU 집행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(Merger Review)중이며, 예비 승인(Preliminary Approval)을 이미 획득한 상태
- Kyivstar는 재생에너지 분야 첫 투자를 추진, Cyprus 소재 Merestone Limited 소유의 태양광 발전회사 Sunvin 11(Zhytomyr 지역, 12.95MW 규모) 인수 계획
- Sunvin 11은 2024년 기준 €81.8백만(약 28억원) 매출 기록, 인수가치는 약 5백만 달러(약 72억원)로 추정
- 모회사 Veon은 이미 Odesa 및 Zhytomyr 지역에 파일럿 태양광 발전소 투자를 진행했으며, 이번 인수를 에너지 부문 진출의 첫 단계로 평가
- Kyivstar는 통신망 안정성 확보 및 정전 위험 완화, 전력비 절감을 위해 자체 발전 또는 전력 구매 계약 확대 추진 중
- 이번 투자들은 전력 인프라 취약성과 에너지 안보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대기업들의 산업 다각화 및 자립적 에너지 전략 강화 추세를 반영

○ 키이우 및 서부 우크라이나 주요 상업시설 공실률 감소(11.4)

- 2025년 하반기 기준 키이우와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쇼핑센터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
- 상위권 쇼핑몰의 평균 공실률은 7~13% 수준이며, 일부 시설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함
- 연면적 5만㎡ 이상 대형 쇼핑몰의 공실률은 여전히 약 16%로 높은 편이며, Blockbuster, Promenada, Atmosfera, Marmelad 등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한 적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주요 쇼핑몰 중 Blockbuster Mall은 공실률이 30%로 2024년 50%에서 개선되었고, Lavina Mall은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하며 공실 없음
- River Mall은 공실률이 1~2% 수준으로 사실상 만점유 상태이며, ResPublica Park은 9~10%로 일부 면적은 IKEA 입점을 위해 예약 중
- 체르니히우의 주요 쇼핑몰 TSUM Chernihiv(18,000㎡)은 80~420㎡ 규모의 신규 임차인을 모집 중임
- 전쟁 이후 소비 회복과 내수 확대, 서부 지역 인구 유입, 대형 유통사의 재진입이 공실률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

○ 우크라 사무용 부동산 시장, IT 대신 국제 방산기업이 수요 주도(11.5)

- 우크라이나 사무용 부동산 시장에서 국제 방위산업 기업들이 IT 부문을 대신해 주요 수요 주체로 부상하며 전쟁 이후 시장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
- 부동산 컨설팅사 UTG에 따르면, 우크라이나 내 해외기업 대표사무소 수는 2021년 627개에서 2025년 3분기 기준 616개로 소폭 감소함
- IT 산업의 GDP 비중은 2022년 5.42%에서 2024년 3.42%로 줄었으며, IT 서비스 수출도 같은 기간 75.2억 달러에서 63.8억 달러로 감소
- 반면 우크라이나가 첨단 무기체계 실험 및 군사기술 개발의 시험장으로 부상하면서 글로벌 방산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확대됨
- 독일(Rheinmetall, KMW), 터키(Baykar), 미국(Northrop Grumman), 영국(BAE Systems) 외에도 노르웨이, 라트비아, 덴마크, 프랑스,

이탈리아, 스페인, 폴란드 등 다수 국가 기업이 공동생산시설, 공장, 연구센터, 행정 및 사무공간 설립을 추진 중임

- 이들 기업의 현지 사무소 개설과 고용 창출이 사무용 부동산 수요를 견인하며, 전후 우크라이나 산업 생태계 재편의 핵심 축으로 작용 중

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○ 폴란드 PGE, 도우나 오드라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(10.26)

- 폴 국영전력회사 PGE GiEK가 포모제 지역 그리피노에 위치한 도우나 오드라 화력발전소의 석탄 발전설비의 폐쇄를 결정
- 발전소는 2단계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 완전 폐쇄될 예정이며, 점진적 인력 감축이 병행됨
- 10월 24일 PGE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인력 보호 및 폐쇄 협약을 체결, 총 250백만 즈워티(약 980억 원)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마련함
- 자발적 퇴직자에게 최대 평균임금 30개월치(약 40만 즈워티) 지급, 정년 임박 근로자에게는 유급휴가 및 재취업 지원 기회를 제공함
- 인력은 2025년 말까지 750명에서 395명으로, 2026년 8월까지 124명으로 축소되어 총 600명 이상이 감원될 예정임
- PGE는 도우나 오드라 지역에 1,366MW 규모의 복합가스 발전소 2기를 2024년 준공
- 추가 가스 발전소와 그리피노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으로 저탄소·고효율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

○ OSGE, SMR 건설 후보지로 스타워바 볼라 검토 착수(10.28)

- Orlen Synthos Green Energy(OSGE)가 스타워바 볼라 시 당국과 협약을 체결하고 BWRX-300형 소형모듈원자로(SMR) 발전소 입지 분석에 착수함
- 후보지는 유로파크 스타워바 볼라 투자지구내 위치, 약 300헥타르 규모로 도심에서 5km 가량 떨어져 있으며, 해당 부지 대상으로 환경·입지 분석과 기술 검토를 수행할 예정

- 2023년 12월 폴란드 기후환경부로부터 최대 4기 BWRX-300 설치에 대한 원칙적 승인을 받았으며, 이번 연구는 환경영향평가(EIA) 착수 신청 준비 목적임
- 스타워바 볼라 시 당국은 SMR 프로젝트가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와 첨단산업 유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함
- OSGE는 스타워바 볼라 외에도 폴란드 내 후보지(브워츠와베크, 스타비 모노프스키)에서 환경연구와 현장조사를 진행 중임
- 14기 BWRX-300(3개 지역)에 대해 EU 보조금 및 발전차액계약 (CfD) 형태의 공적 지원을 요청했으며, 1기당 투자비는 약 20억 유로, 예상 발전단가는 115~135유로/MWh임
- OSGE는 Orlen과 Synthos가 공동 설립한 합작사로, 폴란드의 저탄소·에너지 안보 중심축으로 SMR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

○ 폴란드, 바이오메탄 플랜트 건설 위해 1.89억 유로 확보(10.28)¹⁾

- 폴란드 환경·수자원 보호 국가기금(NFOŚiGW)이 바이오메탄 플랜트 건설 지원을 위해 8억 즈워티(약 3,136억원)을 확보
- 이번 자금은 유럽투자은행(EIB)이 승인한 현대화 기금(Modernisation Fund) 패키지의 일부로, 에너지 효율 개선과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지원도 포함
- ‘바이오메탄 활용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’ 프로그램 하에, 플랜트 건설 투자자는 적격 비용의 최대 45%까지 보조금 신청 가능
- 신청은 2026년 상반기 개시 예정
- 현대화 기금의 보조금은, EU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으로 조성되며, NFOŚiGW는 이를 운영하는 국가 기관 역할 수행
- 현재까지 NFOŚiGW는 EIB와 총 46억 즈워티 규모의 25개 지원 프로그램을 협의 완료

○ 폴란드 NCBJ, 美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협력 강화(10.31)

- 폴란드 국립핵연구센터(NCBJ)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(Westinghouse

1) 초록색 표기 : 그린 에너지 사업에 대한 명기

Electric Company)가 폴란드 민간 원자력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력 협정 체결

- 협력 범위는 ▲첨단 원자로 연구(특히 SMR) ▲핵안전 분석 ▲시험 인프라 구축 ▲공급망 개발 ▲핵공학 전문 인력 양성 등 과학·기술·산업 전반
- 에너지부 모티카 장관은 이번 협력을 “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폴란드 경제의 핵심 성장축”으로 평가
- 웨스팅하우스는 연구개발 부문 및 현지 법인을 통해 폴란드 내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며, 현재 약 400명 고용 중
- 본 협력은 폴란드 발트해 연안에 건설될 첫 상업용 원전(AP1000형 3기) 프로젝트와 연계, 2028년 착공·2036년 1호기 가동 목표
- NCBJ는 폴란드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 ‘Maria’를 운영 중이며,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및 원자력 기술 연구를 주도

○ 폴란드, 향후 8년간 우크라이나와 에너지 연합 유지 방침(10.31)

- 폴란드는 러시아의 에너지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8년간 우크라이나와의 에너지 연합(Energy Coalition)을 유지하기로 결정함
- 폴 에너지안보센터 야쿠빅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키이우의 에너지 연합 창설 발표에 대한 폴란드의 실질적 지지이자 우크라이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언급함
- 양국 협력은 2017년 미국산 LNG를 폴란드 인프라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공급하면서 시작되었으며, 이후 PGNiG(현 PKN Orlen)과 ERU Trading(우크라이나-미국 합작사) 간 협력으로 확대됨
- 현재 PKN Orlen과 우크라이나 Naftogaz는 2028년 이후 장기 가스 공급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,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단기 공급 계약 재개 가능성도 거론됨
-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폴란드-우크라이나 간 에너지 통합을 넘어 중·동유럽 지역 가스 허브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함

○ PGE, 0.9GW 해상풍력 ‘Baltica 1’ 환경 인허가 획득(11.3)

- 폴 국영에너지기업 PGE는 0.9GW 규모 해상풍력단지 'Baltica 1'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음
 - 이번 승인은 2025년 12월 17일 예정된 해상풍력 입찰 참가를 위한 필수 조건이며, PGE는 2032년 말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프로젝트를 제출할 계획
 - Dariusz Marzec CEO는 이번 승인이 PGE 그룹의 2035년까지 해상 풍력 4GW 이상 설치 전략 달성의 핵심 단계라며, 폴란드 공급업체 참여를 통한 국내 해상풍력 밸류체인 구축 의지를 강조함
 - 환경조사 및 영향평가 보고서는 그디니아 해양대학교와 해양환경 전문기업 MEWO가 공동 수행함
 - Baltica 1 프로젝트는 발전용량 약 0.9GW, 위치는 육지에서 약 80km 떨어진 발트해 Central Bank 해역 Władysławowo 인근
 - 현재 위치 허가·계통연계 계약·지질·지반 조사·풍속·해류·파랑 측정이 완료되었으며, 발전차액계약(CfD) 체결 시 2032년 가동 목표
 - PGE 그룹은 폴란드 전력 생산 약 41%, 열에너지 시장 18%, 재생 에너지 점유율 약 10% 차지
- 폴, 내년부터 '비상 대피소 설치 의무화'로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(10.31)
- 2026년 1월부터 신규 주택 건축 허가 신청 시 지하층·주차장 등에 '임시 대피소(ad hoc shelter)' 공간 포함 의무화
 - 시행 전 구(舊) 기준 적용을 받기 위한 허가 신청이 연말에 급증할 전망
 - 일간지 Rzeczpospolita에 따르면, 건설업계는 해당 조치로 건축비 상승이 불가피하며 아파트 가격이 약 5%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
- 폴, 슈비누이시치 심해 컨테이너 허브 건설 수정안 공개(11.4)
- 폴란드 정부는 슈비누이시치(Świnoujście) 심해 컨테이너 허브 건설 수정안을 공개했으며, 해당 수정안에 따르면 2029년 완공 목표
 - 신항만 부지 '포메라니아 곶(Cape Pomerania)'은 186헥타르 규모로, 20백만 톤 이상의 모래를 매립해 조성 예정
 - 총사업비 약 100억 즈워티(약 3.92조원)

- 19백만 톤 준설공사로 진입항로를 확장(길이 70km, 폭 500m, 수심 17m), 회전 수역 및 접안시설(2,900m 길이 부두) 신설
- 세계 최대급 400m 컨테이너선 접안 가능, 연간 최대 200만 TEU 처리 목표
- 교통 및 인프라 구성은 3km 철도 진입로 2개와 총 10개 선로(길이 800m), 도시에서 4km 떨어진 47헥타르 신도로망, 신규 에너지 인프라와 방파제가 포함됨
- 항만 건설과 관리는 ZMPSiŚ(슈체친 - 슈비누이시치 항만청)가 직접 수행하며, 향후 운영 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
- 이전 벨기에 - 카타르 컨소시엄 계약(2023)은 자금조달 불이행으로 해지
- 마르헤프카 인프라 부차관은 “이번 계획을 통해 세계 최대 선박 입항이 가능하고, 이전 정부안보다 수익성이 높으며, 수십 년간 항만의 성장 기반을 확보할 것”이라고 강조
- 지난 18개월 동안 입지·환경 승인, 해저 지질조사, 항만 수역 설계 완료, 2026년 1분기 기술 도로 시공사 선정 및 2027년 착공 예정

○ Grupa Azoty, Polyolefins 사업부 매각 추진, 연내 협상 타결 기대(11.4)

- 폴란드 화학기업 그루파 아조티(Grupa Azoty)가 폴리올레핀 (Polyolefins) 부문 매각 및 사업 철수 계획을 공식 발표함
- Orlen이 10월 중순 제출한 Grupa Azoty Polyolefins(GAP) 인수 비구속 제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, 거래 종결 목표 시점은 2026년 6월 30일
- 인수 제안 규모는 1,022백만 즈워티이며, “무현금·무부채(no cash, no debt)” 조건으로 GAP의 모든 지분과 자산을 인수하는 구조
- Orlen은 GAP의 채무 재조정과 소수 주주 지분 인수 자금 제공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수안을 제시함
- GAP의 현재 지분 구조는 폴리체(Police) 34.4%, 그루파 아조티 30.5%, Orlen 17.3%, 현대엔지니어링 16.6%, 한국 KIND 1.1%로 구성됨

- 그루파 아조티는 “본 사업은 그룹 역량을 초과한 확장 프로젝트였으나, 새로운 주체가 이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언급
- 경영진은 “이해관계자와의 협상을 약 2개월 내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”라며, 연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함

○ Grupa Azoty, 2030 성장전략 및 재무구조 안정화 추진(11.4)

- 그루파 아조티(Grupa Azoty)는 ‘2030 전략’을 발표하며, 매출 170~180억 즈워티, EBITDA 19~20억 즈워티, 수익률 10% 이상, 순부채/EBITDA 2.5배 이하를 목표로 제시
- 총 30~40억 즈워티 투자(Capex)를 계획하며, 재무 건전성 유지와 효율성 제고에 중점
- 조직을 4개 사업부로 재편 ▲비료(매출 110~120억 즈워티), ▲물류(6억 즈워티, 수익률 30%+), ▲방위·화학(6~8억 즈워티, 수익률 40~50%), ▲첨단 화학(30~35억 즈워티, 수익률 4%).
- EU 내 2위 비료 생산업체 지위 유지, 폴란드 시장 점유율 50% 이상 확보를 목표로 설정
- Azoty Business Recovery 프로그램으로 2027년까지 10억 즈워티 절감 목표, 현재 3억 달성·인력 18백명 감축·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53백만 즈워티 확보
- 한편, 12개 금융기관 및 유럽투자은행(EIB)과 금융계약을 2025년 11월 28일까지 연장하였으며, 이는 유동성 유지 및 구조조정 지속을 목적으로 함
- 다만 신용한도를 기존 2.4억 즈워티에서 10백만 즈워티, 팩토링 한도 5억 즈워티에서 2.5억 즈워티로 조정되어, 단기 자금 운용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
- 회사는 채무 상환 및 이자 지급 의무를 이행 중이며, 이번 조치로 공급망 결제·사업 연속성 자금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함

○ Grupa Azoty, 2030 전략 야심적이지만 CAPEX 부족 우려(11.5)

- Erste Group의 애널리스트 Szkopek에 따르면, Grupa Azoty의

2030년까지 전략은 매우 야심차지만, 2025~2030년 계획된 CAPEX 30억~40억 즈워티 수준은 목표 달성에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

- 2030년 매출 목표 170~180억 즈워티는 매우 공격적이며, 현실적으로는 PDH 프로젝트 제외 시 120억 즈워티 수준으로 예상
- 회사는 비료 판매 40% 증가, 방위·물류 등 신규 사업부문으로 매출 10억 즈워티 증대 목표, EBITDA 목표 19~20억 즈워티
- 이전 전략에서 설정된 탈탄소화 목표는 포기, 비용은 1조 즈워티 미만으로 낮춰 계획하였으며, CBAM 도입 및 탈탄소화 관련 과제와 함께 비료시장 확장은 현실적 도전
- 폴란드 비료시장 점유율 50% 목표로 설정하였으나, 과거 70~80%였던 점을 고려할 때, 점유율 회복을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함

○ 폴, 그단스크 신규 LNG 터미널 건설 순항, 2028년 초 완공 예정(11.4)

- 폴 국영 가스전송공사 가즈시스템(Gaz-System)은 그단스크 항구 내 신규 LNG 터미널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, 2028년 초 완공 예정이라고 발표
- 터미널은 그단스크 Górkі Zachodnie 지역 육상 부지에 위치하며, 육상 공사는 상당 부분 완료, 해상 공사는 2026년 봄 착공 예정
- 길이 약 3km 해저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전국 가스망과 연결될 예정이며, 준설 작업은 이미 완료되어 해상 공사 기반 확보
- 부유식 재기화 설비선(FSRU)*은 한국에서 건조 중이며 2027년 말 폴란드 도착 예정

* 부유식 재기화 설비선(Floating Storage and Regasification Unit, FSRU) : 액화천연가스(LNG)를 해상에서 저장하고 기화(재기화)하여 배관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선박형 설비

-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가스 수입 다변화를 통한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축소를 목적으로 함
- 본 프로젝트는 슈비누이시치(Świnoujście) LNG 터미널에 이은 폴란드의 두 번째 대형 LNG 허브로, 발트해 연안 인프라 확장과 국가 에너지 자립도 제고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
- 해저 배관, 기계설비, FSRU 계류시설 등 주요 기자재 입찰은 2026년

부터 본격화될 전망

- 폴란드, EU로부터 450백만 유로 규모 교통 인프라 보조금 확보(11.5)
 - 클림차 인프라부 장관은 폴란드가 EU ‘유럽 연결 프로그램 (Connecting Europe Facility)’을 통해 주요 철도 및 항만 확충 프로젝트 지원금을 확보했다고 발표함
 - 이번 지원금은 전체 배정액의 약 16%로, 폴란드가 EU 회원국 중 최대 수혜국으로 선정됨
 - 약 390백만 유로는 국영 철도운영사 PKP PLK에 지급되어 Rail Baltica 구간 현대화(폴란드 - 발트3국 - 핀란드 고속철 연결) 및 ERTMS 철도 안전시스템 구축에 사용됨
 - 18백만 유로는 카토비체 - 체코 국경 구간 신규 철도노선 기획에 투입
 - 44백만 유로는 슈비누이시치(Świnoujście) 항만 진입 수로 확장에 사용되어 대형 선박 통항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임
 - 클림차 장관은 “이번 EU 지원으로 폴란드 교통망의 안전성·속도·경쟁력이 강화될 것”이라 강조함
 - 폴란드 정부는 2021 - 2027 EU 예산 기간 동안 총 127억 즈워티의 CEF 자금을 확보했으며, 이는 EU 회원국 중 최대 규모 실적으로 평가

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- 노르웨이 기업, 우크라 리브네 지역에 풍력 발전소 2개 건설 계획(10.27)
 - 노르웨이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Fenix Repower, 리브네(Rivne) 지역에 풍력 발전단지 2곳 설치 추진
 - 각 단지는 9~12기의 터빈으로 구성되며, 터빈 1기당 7MW 발전 용량 확보 예정
 - 지역 당국은 “적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풍력 발전 확대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중요한 조치”라며 전폭적 지원 의사 표명
 - Fenix Repower는 최근 노르웨이 정부의 대(對)우크라 투자 지원 대상 기업 명단에 포함됨

- 한편 흐린추크 에너지장관은 “국영 에너지기업들이 2025년 말까지 400MW 규모의 분산형 가스 발전을 추가 가동할 예정”이라고 언급
- 게루스 에너지위원장은 “올해 말까지 1,000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신규 가동할 계획”이라며, 기업 및 가정 단위 태양광 설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

○ 스웨덴 방산업체 사브(SAAB), 우크라 내 그리펜 전투기 생산공장 설립 검토(10.28)

- 스웨덴 방산기업 사브(SAAB)는 우크라 내 그리펜(Gripen) 전투기 조립·시험시설 및 부분 생산라인 설립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
- 회사 측은 “전시 상황에서 쉽진 않지만, 최소한 최종 조립과 시험을 우에서 진행하고 이후 부분 생산까지 확대할 수 있길 바란다”고 언급
- 양측이 최신형 사브 JAS 39 Gripen E 전투기 100~150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, 사브의 생산능력은 현재 대비 두 배로 확대될 전망
- 현재 사브는 브라질 공장을 확장 중으로, 연간 20~30대 생산을 목표하고 있으며, 향후 캐나다 및 유럽 내 추가 생산거점 확장도 검토 중
- 우크라이나 프로젝트 자금 조달 방안으로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 가능성도 거론
- 전문가들은 사브가 경쟁사들에 비해 생산능력 확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
- 과거 사브의 연간 생산 최대치는 약 18대였으며,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인 약 9~10대를 생산 중

○ 미-우 투자기금, 2026년 말까지 230백만 달러 규모로 확대 전망(10.28)

- 페렐리긴 우크라이나 경제부 차관, “공적자금 1달러당 최대 8달러 민간투자 유치 가능” 언급
- 이에 따라 2027년 초까지 재건투자기금(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, RIF) 총자본 220백만~230백만 달러 도달 예상
- 현재 RIF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 중이며, 전략 광물·천연가스 생산·에너지 인프라·통신·첨단기술 분야를 우선투자 대상으로 설정

- 매장량이 확인된 프로젝트를 우대하되, 리스크 관리계획이 포함된 비확인 프로젝트도 검토 가능하며, 시장가격 변동성과 수급 충격 대응 방안 제시가 필수 요건
- 올해 12월까지 구체적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목표, 일부 프로젝트 협상 이미 착수
- 미국 투자자들은 티타늄, 흑연, 우라늄, 희귀금속 등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및 탄화수소 분야에 높은 관심 표명

○ EIB, 우크라 미콜라이우 상수도 복구에 7천만 유로 지원 검토(11.3)

- 유럽투자은행(EIB)이 2023년 카호우카 수력발전소 파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미콜라이우(Mykolaiv) 상수도 시스템 복구를 위해 7천만 유로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 지원을 검토 중
- 해당 사업은 우크라이나 지방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(Municip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gram)의 일환으로, EIB가 2015년 4억 유로 한도 대출로 개시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추진
- 프로젝트 주요 목표는 ▲음용수 품질 개선 ▲에너지 효율 향상 ▲지역 환경 및 위생 여건 개선 등으로, 지역 사회에 상당한 환경 및 사회적 편익 기대
- EIB는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및 인프라 강화 지원 규모를 40억 유로로 확대
- 한편, 키이우 시의회도 지난달 548백만 흐리우냐(약 188억원)를 추가 배정해 수도·하수도 시스템의 운영 안정성과 에너지 자립성 제고 추진

○ 우크라, 영국 주도 JEF 공식 가입, “푸틴에 대한 명확한 경고”(11.6)

- 우크라가 영국 주도 연합방위체(Joint Expeditionary Force, JEF)에 가입
- 영국 정부는 “푸틴의 침략을 우리의 힘으로 맞설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”라고 강조
- 영국 국방장관 힐리는 “JEF 회원국들이 우크라의 자유 수호를 위해 더 강력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”이라며, 새로운 협력 강화의 의의를 강조함.

- 이번 합의는 노르웨이 보되(Bodø)에서 열린 JEF 11개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체결되었으며, 우크라이나 슈미갈 국방장관이 참석함
- 협력 확대의 핵심은 발트해 및 북극권(High North) 지역 안보 강화로, 핵심 인프라 보호, 드론 운용, 전장 의료, 허위정보 대응 등 분야에서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임.
- JEF는 또한 우크라이나군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, 슈미갈 장관은 “우크라이나는 하이브리드 전 대응과 장거리 타격 경험을 공유하고 JEF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”고 언급
- JEF는 2018년 설립된 다국적 신속대응군체로, 현재 영국을 중심으로 덴마크, 에스토니아, 핀란드, 아이슬란드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스웨덴, 우크라이나 등 11개국이 참여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1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

< 사업 개요 >

- (발주처) 해외건설협회, KIND, 태웅로직스
- (용역사) 삼일회계법인, 법무법인지평
- (용역비) 73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5.2.~2025.10(262일)
- (추진현황) '25.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
'25. 3월 현지 착수보고
'25. 6월 중간보고회 개최
'25. 10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○ (주요동향) 용역계약 연장 완료(10.31 → 12.12)

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2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업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3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

○ (주요동향) EPC 관련 보증 회수(107백만유로)로 중재절차 착수 예상

② Ursus 열병합 발전소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KIND, 남동발전, 베올리아, BHI
- (사 업 비) USD 490백만
- (사업기간) 2026.2.~2054.12. (건설 38개월, 운영 20년)
- (주요내용) 전기 121MWe, 열 90MWt 규모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
- (추진현황) '23. 4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의결
'24. 1월~7월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(F/S 비공모 컨설팅지원)
'25. 10월 타당성 재검증 용역 실시 (남동발전)
'25. 12월 KIND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예정
'26. 2월 금융종결 및 NTP 발급
'29. 4월 COD

- (주요동향) 사업주 간 협의 및 타당성 재검증 용역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의위원회 부의 예정

③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 업 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
'25. 6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 완료
'26.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- (주요동향)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참고	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		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 이 우 교 통 마스터플랜	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	KIND LH	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 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플랫폼) 2027 국토교통 ODA 추진
우만 스마트 시 티 마스터플랜	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	KIND	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4월4주) •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
보 리 스 공 현 대 화 재 필 향 등 건	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	한국 공항공사	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용역사 선정 및 과업착수('24.12월)
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	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	환경산업 기술원	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7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
댐 재건 및 현 대 화 등	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	수자원 공사	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. 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6년 3분기)
철 도 노 선 고 속 화 등	• 우 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(919km) 중 우크라 구간(580km)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•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자 선정 및 착수 예정 ('25.4분기)